

美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준비...한국 의견 반영될까

재무부 혜택 지침 연말까지 작성 핵심 광물 요건 계산법 공개 등 미국 자동차 업계도 완화 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각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제의 문제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번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한 지침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이 법은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067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2년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수혜 대상이 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가치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이 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아진다.

게다가 양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가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어야 한다. 이 비율 역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른다.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업체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우려를 전달했고, 양국 정부는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다른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세액공제 혜택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

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완성차 업체가 포함된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이번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전기차 모델 중 70%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업계가 그동안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광물의 가공을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AAI는 이에 업계가 완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재무부가 지침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는 구체적으로 핵심 광물 요건이 충족됐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계산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리튬이나 코발트 등의 광물은 광산에서 캐낼 때와 이를 가공했을 때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법에 따라 40%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업계는 부품 요건도 배터리셀이 아니라 배

터리팩을 기준으로 판정하길 바라고 있다. 배터리팩은 배터리셀의 묶음인 배터리 모듈을 여러 개 묶어 만든 것이다.

미국 업체들은 최근 들어서야 자국 내에 배터리셀 제조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업계는 아울러 우리 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배터리를 주요 광물을 조달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요구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의 본사가 중국 이외의 국가에 있지만, 해당 기업의 자회사나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EPA)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있으며, 세계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정의할지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스텔스구축함 日 배치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듯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이 해군의 최신 스텔스 구축함을 일본에 배치했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쥘월드 구축함이 지난 26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도착했다.

쥘월드함은 원래 미국 샌디에이고를 모항으로 뒀으나 파코로 이동한 뒤 지난 19일 일본으로 출항했다.

미 해군은 쥘월드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7함대의 주력 해상 전력이자 미 해군이 전방에 배치한 구축함전대 중 가장 큰 규모인 제15구축함전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쥘월드함은 유사시 한반도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제15구축함전대 대변인은 CNN에 "쥘월드함은 우리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역대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쥘월드함은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과 함대지 및 함대함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0개의 수직발사대를 탑재했다.

특히 해군은 최소 마하 5(시속 6천120km)의 속도로 날아가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쥘월드함에 탑재할 계획이다.

최근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해군이 최첨단 구축함으로 전력을 보강한 것이다. /연합뉴스

중국군 "스텔스기 전국 배치 전쟁 준비 중요한 역할"

중국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쥘(J-20)을 중국 전역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선전주 중국 공군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서 J-20이 날아오르고 있다"며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이 이미 모든 지역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J-20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인 미국의 F-22와 맞대결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다.

2016년 주하이 국제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2019년 중국 공군 건군 70주년 에어쇼에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15대가 한 번에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제공권 장악, 중요 표적 정밀 공격 등 임무에 투입될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선 대변인은 이어 "J-20 대수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비행거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신시대 훈련과 전쟁 준비에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넌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대만 포위 훈련을 언급하며 "J-20과 J-16 전투기 등 국산 신형 전투기가 날아올라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지키는 능력을 향상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병참영토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동원령에 따라 소집된 예비역 장병들이 출정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U "러 동원령 후 유럽 입국 러시아인 30% 이상 늘어"

징집 회피 '엑소더스' 지속

러시아에서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부분 군사동원령이 발령된 뒤 러시아인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으로 입국하는 러시아인이 일주일만에 30% 이상 늘었다고 EU 당국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국경 수비 업무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는 이날 "지난주 약 6만6천 명의 러시아인이 EU로 들어왔다"

며 "이는 그 전주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프론텍스는 "러시아인 대부분은 EU 회원국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로 입국했다"면서 "지난 나흘(24-27일) 동안에만 3만명의 러시아인이 핀란드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국경을 넘는 러시아인은 대체로 EU 내 거주하거나 비자를 갖고 있는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프론텍스는 "러시아가 동원령 대상자들의 출국

을 금지하면 불법 월경도 늘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러시아인의 EU 내 불법 체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7개 EU 회원국들은 지난 26일 국경을 넘는 러시아 병역기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는 앞서 8월 말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이 발의한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조율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정부 수반 총리에 임명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자신이 맡던 총리직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넘겼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은 27일(현지시간)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디 사우디 국왕이 이날 그의 아들인 무함마드 왕세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각 인사 직령을 발표했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총리는 사우디 정부의 공식 수반으로, 그간 국왕이 이 자리를 유지해왔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제 새 총리로서 국민을 맞이하고 정상회담에서 의장을 맡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미 국왕의 명령에 따라 국가의 조직을 매일 감독하고 있으며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무회의는 살만 국왕이 계속 주재한다고 직령은 밝혔다.

이와 함께 무함마드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빈 살만은 국방장관에, 국왕의 또 다른 아들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은 에너지 장관에 각각 임명됐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의 국방 지립도를 높일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SPA 통신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날 국방부에서 신임 국방장관과 만나 "그간 사우디의 군수 산업 자립률이 15%로 높아졌다"고 격려하고, "이제 새로운 국방장관과 함께 이를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